

본 회 의 회 의 록

개회식

대덕구의회사무과

일 시 : 2021년 09월 02일 (목) 11시 개식

제259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 임시회 개회식순

1. 개 식
1. 국기에대한경례
1. 애국가제창
1. 순국선열및호국영령에대한묵념
1. 개회사
1. 폐 식

(개식 11:00)

○의사팀장 이승숙 지금부터 제259회 대덕구의 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.

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.

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국기에 대하여 경례

바 로

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. 반주에 맞 추어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.

(애국가 제창)

이어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.

일동묵념

바 로

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.

다음은 김태성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 다.

○의장 김태성 존경하는 대덕 구민과 동료 의 원 여러분!

그리고 박정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

러분!

올여름은 유독 시원한 음료와 찬 음식을 찾 는 듯합니다. 찬 음식이 몸에 유익치 않아 한방 에서는 자제를 당부하곤 합니다.

그러나 사람은 달콤한 말과 행동에 끌리듯이 듣기 거북한 말은 피하고 싶은 것 또한 본능인 듯 합니다.

말의 홍수시대인 오늘을 살기 위해서는 진실 한 말과 거짓을 분간할 수 있어야 하지만 듣기 거북한 말이라고 해도 그 말 속에 진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.

노자는 진실한 말은 꾸밈이 없고, 꾸미는 말 은 진실이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. 진실만이 진 실을 전할 것이고 지켜지지 않은 약속은 상대에 대한 진심과 신뢰를 저버린 까닭이라고 생각합 니다.

저는 오늘 여러분께 겸청즉명(兼聽則明)을 제 안해 봅니다.

최근 미디어, SNS를 통하여 누구나 할 것 없 이 각자 의견들을 표현하고 주장하는 세상입니 다. 듣기보다는 자기 주장이 강한 현실에 여러

사람의 의견을 들으면 시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다는 말로 치우쳐 듣고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면 발전을 이룰 수 없음을 되새기게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.

독단적인 자기애가 아닌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 자기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겸청즉명(兼聽則明)하시느 9월이 되시길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○**의사팀장 이승숙** 이상으로 제259회 대덕구의 회 임시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.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.

(폐식 11:05)